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조미연

『학력사항』

- 서울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효력 집행정지신청 담당 부장판사
-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5년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 10)

이 말씀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마치 오래 전의 옛날 일처럼 아
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부산
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
서 주신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을 마감하고 또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서 이제 막 출발
하여 허덕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나
의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지 의문입니다. 저 역시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합격기를 읽는 친구들을 보
면서 쓸데없는 걸 본다고 핀잔을 주었
는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합격기를 쓴
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끄
끗하게 저의 합격기를 끝까지 읽는 분
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것으로 저
는 저의 지난 과오를 용서받는 것이라
고 생각하면서 저의 지난 이야기를 친
구에게 이야기 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광주, 지금은 광역시이죠. 그곳에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랐던 외할머니댁이 있는 나주 남평의 기억이 제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봄이면 친구들과 대바구니를 들고 쭉을 캐러 다니고 여름이면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 새벽 두부장수의 요령소리와 희뿌연 새벽하늘을 날던 기러기떼들입니다. 그곳은 5일장이 서는 곳이기도 해서 장날이면 딸각딸각하는 말발굽소리가 들리고 장꾼들의 흥정하는 소리로 북적대곤 했습니다. 지금도 아련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추억으로 나의 삶이 풍부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린시절을 보내고 최초의 고생길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보기에는 말씀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신데도 초등학교 입학식 이후 한달 동안 거의 매일 학교까지 저를 바래다 주시곤 하였습니다. 저는 키도 크시고 잘생긴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이 자랑스러워 다른 아이들은 다들 엄마와 같이 오는데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은 되지 못하여 부모님을 안타깝게도 했는데 결석만은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아플 때는 엄마가 학교까지 업고 얼굴만 내밀고 와 결석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극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격기까지 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력저력 초등학교를 마치고 꿈 많던 소녀시절인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춘기는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

만, 당시에는 꽤나 심각했었나 봅니다. 열다섯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꺾어진 서른이 되었으니 세상 다 살았다는 생각에 밤새워 베개를 적시며 울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새 세상을 다 산 서른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

또 그렇게 그럭저럭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소위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듯 저 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차츰 점수별레가 되어 삭막한 수험생이 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저는 어렸을때부터 가고 싶었던 법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학한 해인 1986년도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 학교는 휴교를 하게 되었고, 1987년도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 최초로 민중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추웠던 겨울 민중후보의 선거팀에서 문선대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고민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황동들을 부모님들은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게 되었고 부모님 광의 갈등상태가 계속되다 결국 저는 불량비행청소년(?)이 되어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로 끝나긴 했지만 그런 나를 걱정하며 현금카드를 내어주거나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까지 다 털어주던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친구는 어려운 때 알아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시절을 방황하며 공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내다 막상 졸업을 할 때가 되어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선택한 길에서 이제는 실수나 돌이킴이란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무엇이 될래? 하고 물어보면 판사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말에 책임리라고 지듯 고시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판사가 되고 싶다고 애기한 것은 어떤 영화에서 여판사의 모습이 제게 인상깊게 남았기 때문이지 거창하게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참 별 것 아닌 일로 가끔은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귀여운 연인'같은 영화를 보았다면 백마탄 왕자가 기다리는 현모양처가 꿈인 여자가 되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영화를 선택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처음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되는건지 막막한 사막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먼저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 무슨 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조언을 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저는 신림동의 고시촌을 체육복 차림으로 헤매고 있겠지요.

처음 시험 본 제32회 시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러가는 마음으로 치루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같은 하숙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양승조(현 충청남도 도지사)선배님은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위 분들의 도움 덕택인지 다음 해인 제33회 때 1차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애써서 정리한 헌법책과 형법책을 잃어버려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해서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합격은 마치 세상을 모두 얻은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쁜만큼 교만했는지 제34회 2차 시험은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합격자명단에 이름이 없자 신문의 인쇄가 잘못되어 내 이름만 빠진 것이라고 수없이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좌석버스에 올랐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아저씨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집으로 와 방문을 잠그고 세상에 태어난 이후 가장 큰소리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배운게 000'이라고 결국 다시 돌아와 책상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충격이 컸던지 아니면 아직 나의 교만이 꺾이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제35회의 1차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내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응시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1차 시험의 합격이 관건이기 때문에 1차시험 준비

를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독일어가 가장 큰 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어 과목에 그 전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독해집을 2권 사 매일 아침과 점심식사를 한 후 또는 다른 공부를 하다 지겨울 때 조금씩 해석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봤던 독일어 모의시험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어려운 문제들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법과목은 잘 정리된 문제집을 중심으로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같은 경우 교과서를 이것저것 참조하여 학설이나 판례를 정리하고 모의시험을 보고 틀렸던 문제는 문제와 답을 그대로 써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 다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교과서를 쭉 정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하여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깊이 없는 공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시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장시간 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이 시험은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시험보기 서너달전까지는 새벽에 수영을 하고 그 후에는 신림동 약수터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찬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특히 아침잠이 많았던 저는 아침잠을 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영을 권하고 싶은데 수영을 하게 되면 지구력이 생기고 남자들 같은 경우 솔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분 좋게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서 포기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시 책상에 앉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한계상황에 부딪쳐 회의가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으실 텐데 저는 이런 제 경험에 비추어 종교를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Q.T(Quiet Time)로 시작하는 아침은 제가 시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으며 가끔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2차시험은 신림동의 학원에서 순환을 들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보는 범위까지는 의무적으로 보아야 했고 시험성적을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어 자극도 되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단지 모의시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되 시험을 볼 때는 최선을 다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와 같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험 본 문제는 그날 다 소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되도록 한편의 책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헌법과 민법은 주관식 문제집으로 보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책들이나 『考試界』모범답

안을 참고해 여백에 써넣어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양이 많은 상법의 경우 제35회 때 합격한 친구인 임재동이 쓴 강의노트(지금은 '신경향 상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책이 되었지만)는 상법에 대한 감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한권이 책을 정해 먼저 정독을 하시면서 대충 그림을 그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34회 때 보던 책들을 바꾸지 않고 보았습니다. 대신 변경된 판례가 있으면 이를 정리해 써 놓은 식으로 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해마다 책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도록 자신이 보던 책으로 보는 것이 눈에 익어 좋습니다.

형법의 경우 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정선근 교수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특강을 듣기도 했는데 그분의 힘에 넘치는 강의는 사람을 때료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기에 책이 어렵다는 향간의 얘기를 일축하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또한 책을 보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답안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간지를 사용하여 그것만 보면 답안을 쓸 수 있게끔 자신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을 읽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을 때는 큰 목차만을 정리하고 다음에 볼 때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는 식으로 단권화를 하였으며 중요한 부분에는 포스트잇을 사용해 시험 당일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였는데 83에서 87학번까지 서로 다른 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격려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마치면 가끔은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스터디팀의 친목도 다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스터디는 시험 보는 해 5월 초까지 하고 그후에는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잘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장소를 바꿔 고시원 방에서 하다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나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여름을 맞이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날 잠이 오지 않아 거의 잠을 한 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다니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시험장소가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었습니다. 제34회 때 국민윤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과락없이 떨어졌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편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답안을 쓰려고 했지만 의외의 문제가 나와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떨어지면 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답안을 썼습니다.

그렇게 헌법시험까지 무사히 치르고 둘째날, 셋째날, 그리고 마지막 형소법까지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저는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시험을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시험을 잘 잘 치루었는지와 관계없이 단지 시험이 끝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와 있어서 함께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괴롭히던 잠도 다 어디로 달아났는지 잠이 오지 않아 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새벽까지 고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딴 돈으로 동생과 그동안 말로만 듣던 새벽 남대문 시장에 가 이것저것 재미있는 구경도 하였습니다.

발표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별로 한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 드디어 발표일. 그런데 별로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격이나 불합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었던 날이 마침 엄마가 권사님이 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컴퓨터 학원에서 돌아와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 불합격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수험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건조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던 수험표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눌렀던 수험번호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떨림이란... 다시 번호를 확인하고 눌렀더니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건조한, 그렇지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전화연결이 안되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줄 아셨던 부모님께 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감사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수험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그렇게 저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시험에만 합격하면 세상이 다 제것인양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의 합격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수원에 들어오면 사시준비를 했을 때보다 어떤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농담으로 시험공부할 대가 좋았다는 말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아마 가진 자의 푸념이겠지요. 여러분들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최선을 다한다면 꼭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고시생들이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하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동안 산만했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책상 앞에 앉아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의 어렵고 힘들지만 곳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저의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그럼 힘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내년에 연수원에서 서로 어떤 얼굴들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서 항상 걱정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들과 동생, 그리고 시험 보는 4일 동안 빠지고 앓고 신림동에서 종로까지 나와서 새벽기도로 나를 후원해 준 친구 대진이에게 감사하며 물심양면으로 고시반 생활을 지도해 주신 백종호 선배님, 풍부한 판례와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유머의 소유자 석주형, 의지의 한국인 문수, 여리고 착한 로맨티스트 병찬이, 고시생만의 판례를 쌓아가고 있는 규철이, 작은 체구에 넘치는 박력의 소유자 윤수가 머지 않아 연수원에 들어오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